

# 군산농기센,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실천 '구슬땀'

## 영농폐기물 일제수거 실시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들녘에 방치·보관되고 있는 영농폐자재를 집중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거 품목은 병충해 방제에 사용된 농약병, 시설하우스나 토양 멀칭에 사용된 비닐, 토양 살포용 비료포대, 축산용 폐비닐 등이

며 수거 폐기물은 전량 전북환경본부에 인계해 자원화 할 예정이다.

올해는 상·하반기 170여톤을 수거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7% 늘어난 것으로 해마다 지속 증가하고 있다.

연합회는 영농폐자재 자원화 수익금을 12개 읍·면·동 주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등 지역사랑 나눔 기부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와 12

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생활개선회원 577명이 탄소중립 NO 플라스틱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영농폐자재 수거확대, 영농부산물 안 태우기,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 12개 세부 실천과제를 실천한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목표로 영농폐기물의 상·하반기 적기 수거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찬우 기자

## 새만금일보

# 군산, 깨끗한 친환경 농촌 만들기 '적극'

## 영농폐기물 일제수거 활동

###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들녘에 방치·보관되고 있는 영농폐자재를 집중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지속가능 농업과 깨끗한 농촌환경지킴이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로 18년째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사업 실시로 방치된 영농폐기물 자원화 및 친환경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수거 품목은 병충해 방제에 사용된 농약병, 시설하우스나 토양 멀칭에 사용된 비닐, 토양 살포용 비료포대, 축산용 폐비닐 등이며 수거 폐기물은 전량 전북환경본부에 인계해 자원화 할 예정이다. 올해는 상·하반기 170여톤을 수거했으며 이는 지난해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가 20일부터 22일까지 영농폐자재를 집중 수거 활동을 진행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비 7% 늘어난 것으로 해마다 지속 증가하고 있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영농폐자재 자원화 수익금을 12개 읍면동 주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등 지역사랑 나눔 기부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와 12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생활개선회원 577명이 탄소중립! NO 플라스틱!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영농폐자재 수거확대, 영

농부산물 안 태우기,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 12개 세부 실천과제를 채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리영심 회장은 "수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산시 관내 농업인들과 생활개선회원분들에 감사드린다"며 "농업인의 삶과 농업의 터전인 농촌을 깨끗하게 만들고 앞으로도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순정일 기자

